

특집
논문

5·18 광주 민중항쟁 ‘현장’의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

천유철 _성균관대학교

논문요약

이 글은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시각을 통해 광주민중항쟁 ‘현장’에 대한 접근과 분석을 시도한다. 우선 지정학적 소리에 국가권력을 가했던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 그리고 투쟁에 나선 시민들이 음향장치를 통해 형성한 ‘시민공동체’ 마지막으로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에 대항하는 이들의 음향전(sonic warfare)을 고찰한다.

1980년 5월, 소리에 둘러싸인 ‘광주’는 심리전의 전술 범위이자 미디어 체험의 장이었다. 광주에 군을 투입한 신군부는 온갖 음향장치를 응용한 심리전을 전개하며 시민들을 선동·회유하는 전략을 펼쳤다. 라디오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헬기마저 방송을 위해 동원했고 탱크와 장갑차에도 확성기를 장착했다. 이에 학생·시민들도 각종 음향장치를 통해 군의 전략에 방어 대응하는 한편 자기 집단의 정체성을 선전했다. 한마디로 심리전의 역량이 총망라된 장이 광주에 펼쳐졌다.

이 글은 기존의 사실 발굴과 진상규명, 담론 분석 등을 중심으로 접근했던 광주 민중항쟁 연구와 달리 항쟁 ‘현장’에서 전개된 소리의 문화정치전략을 복원·재구성하기 위해 씌어졌다. 이는 광주 민중항쟁 연구의 방법과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시도이다.

■ 주요어: 광주 민중항쟁, 사운드스케이프, 소리의 문화정치, 시민공동체, 음향전.

1. 들어가며

최근 들어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새로운 기억과 해석이 제출되고 있다. 학회 심포지엄과 논문 발표의 장이 넓어지고, 영화 〈26년〉의 서사와 일베 소동처럼 기억과 해석은 다양한 공간에서 ‘재해석’되고 있다.¹⁾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에도 광주 민중항쟁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너무 강하게 살아 있는 신화이거나 상처”로 남아 변함없이 유지된 기억의 재현이 있는가 하면 기존의 지배적인 해석과는 다른 참신한 시각의 연구들도 등장했다(천정환 2014, 390-391). 예컨대 ‘절대공동체’론 등의 해석과는 다른 방향에서 광주 민중항쟁의 배경·프레이밍·상징성·이데올로기, 시민(군)의 주체성 등을 다룬 연구가 그렇다.²⁾ 이는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지적·심리적 ‘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서 광주의 기억과 그 기억 투쟁이 세대 전승되고 주체를 확산해 나감을 보여준다. 이에 비추어 오늘날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기억이 ‘재해석’되는 것은 어떠한 맥락

1) 이를테면 실천문학사의 “2015 실천포럼” 〈다시, 새롭게 읽는 광주〉와 거기서 발표된 논문. 그리고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 김정한. 2015. “소설로 읽는 5·18, 그 언어의 세계.” 『실천문학』 통권117호; 천유철. 2014. “5·18광주민중항쟁 ‘현장’의 문화적 실천 양상.” 『민족문화사연구』 제55권.

2) 이에 대한 연구로는 김정한(2013)이 대표적이다. 그는 광주 민중항쟁의 이데올로기·시민군의 주체성을 통해 광주 민중항쟁을 ‘대중 봉기’로 개념화하고 시민군의 무장 저항을 ‘반폭력의 정치’로 재해석했다. 또한 실제 사례를 제시하여 대중의 투쟁이 지배 이데올로기로부터 시작되며, 대항 이데올로기는 ‘사후 효과’로 출현함을 증명했다.

에서일까. 그것은 '민주정부의 실패로 인권과 민주주의가 근저로부터 위협받고, 사회운동의 위축으로 운동의 주체마저 해체되어가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천정환, 2013/08/09). 광주 민중항쟁은 민중주권의 경험이자 국가폭력에 전면으로 저항한 전사(前史)로서 다시 평가될 소지를 지니는 것이다. 즉, 현재의 기억과 해석은 우리 사회가 겪는 여러 모순과 상황 같은 계기점을 통과하며 여전히 '80년 5월 광주'와 투쟁하고 있다.

그래서 당시의 사회운동과 문화·정치 투쟁, 그것이 응축한 심층적 의미에 대한 재해석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갖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주 민중항쟁은 여전히 '광주'만의 것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는 일련의 논의가 광주 민중항쟁의 전개 과정·지역적·구조적 원인 분석에 초점을 두거나 보편적인 분석체계를 활용하여 역사적 특수성·다양성이 획일적인 논의로 수렴된 것과도 관련 있다. 즉, 정치학·사회학적 프레임 속에서 진행되어온 광주의 '기억 투쟁'은 민주주의의 근원을 드러냈지만, 한편에서는 '혁명적 사건'을 박제화·신화화할 우려도 내포했다.

이 글은 기존 광주 민중항쟁 연구의 주류적인 흐름이 담지 못한 인식을 염두에 두고, 현장에서 전개된 소리의 문화정치전략을 구체적인 수행적 텍스트로 복원하기 위해 씌어졌다. '현장'의 소리를 기록한 수행적 텍스트들은 라디오나 음반처럼 다시 그날의 '소리'를 구현할 수는 없지만, 사운드스케이프에 반응한 시민들에게 미친 영향을 포착한다. '현장'에서 항쟁을 체험한 사람들은 광주를 둘러싼 '소리'를 기록하거나 후일 증언을 통해 기록물을 남겼는데, 특히 국가와 시민의 소리가 충돌·공존 하던 상황과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에 강박을 느꼈던 경험에 주목했다.

이 기록들에는 한 공간에서 국가/시민의 선전·선동 방송이 경합하던 상황, 가두방송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는 상황, 계엄군 진입을 알리는 방송을 듣고 공포를 느꼈던 상황 등이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수행적 텍스트는 항쟁의 ‘현장’에서 소리가 지녔던 파급력과 소리의 충돌·공존 사이에서 소리가 사람들의 신체(감정)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독재에 저항하여 일어난 숭한 봉기의 문화·정치 투쟁은 오랜 세월 동안 강요된 침묵과 폐쇄성, 억눌림을 깨고 일어서는 민중의 모습을 드러냈다(샤브쉬나 1996, 78). 그때마다 민중은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열망을 분출했고, 서로가 열망을 지닌 존재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새로운 주체를 형성했다. 그리고 광주 민중항쟁에서도 시민들은 시·노래·노가바(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유인물·구호·표어·음향·집회 등을 통한 문화적 실천을 전개하며 정치적인 지향을 드러냈다. 현장에서는 갖가지 의미의 언어와 기호들이 저항을 표출했고, 다양한 주체가 부여한 ‘의미’들이 충돌·경합하며 변천해 나갔다. 그러한 시민들의 활동은 공통 감각과 인식, 가치를 발현하며 “당대의 자본·권력·테크놀로지가 투여된 매체와는 정반대 방향에서, 이 시대 미디어의 테크놀로지와 매체성”을 보여줬다(천정환 2009b, 136). 독재와 억압의 시슬을 끊으려는 변혁의 노력이 정치투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전개한 문화적 실천은 정치에 종속된 ‘권력화된 문화’가 아닌 현장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당대 정치 현실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권력을 지닐 수 있었다(천유철 2014, 464).

이 글은 광주 민중항쟁이 전개된 열흘 동안, 서로 충돌하며 저항했던 두 개의 사운드시케이프(Soundscape)를 텍스트로 삼는다. 우선 사회적 신체³⁾의 지배권을 틀어쥐기 위해 지정학적 소리 환경에 국가권력을 가했던 국가의 사운드시케이프,⁴⁾ 또 하나는 국가의 사운드시케이프에 대항하는 이들의 음향전(sonic warfare)⁵⁾을 살펴보려 한다. 두 개의 사운드

-
- 3) '사회적 신체'는 인간-비인간-물질 장치-비물질 장치들이 이루는 근방(近傍)의 합을 의미하며, 제도화된 기능을 원활히 작동시키는 연결만이 아니라, 그 기능을 고장 낼 수 있는 다른 몸의 구성, 몸의 억압된 역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한다. 이러한 사회적 신체는 국가에게 이성적이지 못한 저속한 것, 규율로 다스리고 훈육해야 할 대상, 정신의 지배를 받아야 할 영역이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사회적 신체'인 몸을 변화시켜왔다(임태훈 2014a, 127).
 - 4) 이 글에서는 임태훈이 고안한 '국가의 사운드시케이프' 개념을 차용한다. 그에 따르면 국가의 사운드시케이프는 지정학적 소리 환경에 가해지는 국가권력과 '국민뒹'을 수행하고 (재)매개하는 신체들의 동적 연결망을 일컫는다. 이는 '국민뒹'뿐만 아니라 비국민까지 생산해내는 국민화 장치의 이념적 불완전성이 은폐되는 장이다. 요컨대 어떤 정보를 듣고 들리게 하는 방송 통신이자 들었으나 못 들은 척해야 하고, 듣지 않았는데도 들은 척해야 하는 '국민다움'의 행동 유형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장, 다시 말해 부정신학적인 국민 만들기 장치이다(임태훈 2014a, 1-2).
 - 5) 음향전의 관점은 일상적 존재의 가장 평범한 측면을 재구성하는 다양한 강도(強度)의 문화를 주목한다. 라디오를 듣는 일 또한 음향전의 한복판이다. 조악한 수준의 라디오조차 기술적 요소들과 자연적 요소들이 매개된 연합 환경 속에서 작동하며, 인간은 여러 연합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세계관을 재매개하는 조정자다. 그래서 국가의 위치에서 음향전의 승리는 인간을 예측 가능하고 탁월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신체로 만들 때 가능하고, 반대로 인간의 입장에서선 그러한 포획으로부터 탈출할 때 이를 수 있다(임태훈 2014a, 58).

스케이프에 휩싸인 시민들의 신체는 국가에 의해 훈육되거나 그것에 균열을 냈다. 이는 미디어 환경과 그에 대응하는 몸(신체성)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항쟁 시기, “장치들을 잇는 연결망은 미디어 대(對) 미디어, 미디어 대 몸, 몸 대 몸, 장치들의 연결망 등으로 분기”했고, ‘소리’는 청각에 한정된 현상만이 아닌 몸으로 체험하는 울림이었다(임태훈^a 2014, 20). 그리고 사운드스케이프는 정보의 흐름이 망라된 세계와 신체가 상호작용하는 관계였다. 즉, 울림의 관계망에서 사운드 환경과 신체가 상호작용하는 접점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 글이 지향하는 바다.

2. 음향테크놀로지와 ‘소리’의 풍경화

1980년 5월 15일, ‘서울’에서는 총궐기를 마친 대학생들이 정권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자진 해산했지만, ‘광주’에서는 민주화운동이 연일 계속됐다. 전남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14일부터 16일까지 교외 ‘민족·민주화성회’가 진행됐고 학·내외에서는 각종 시위와 토론이 펼쳐졌다. 학생들은 “규율로 짝 짜여졌던 일상이 멈춘 거리”로 나와 각종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불렀고, 집회를 열어 민주시 낭송·전두환 화형식·햇불 시위 등을 연출하며 정의감과 연대의식을 실현했다(천정환 2009a, 78).

그리고 박달나무 곤봉과 총칼로 무장한 병력이 광주에 투입된 5월 18일. 군은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무도한 폭력을 행사하며 학생·시민들을 진압했고, 이에 학생·시민들도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들의 공방전으

로 비명·야유·울음·신음·구호·노래 등의 수많은 소리가 공간과 신체의 접점에서 울리며, 신체의 내외부(内外部)를 휘감고 온몸의 기관들에 잇달았다. 즉 그들은 소리를 체험하며 신체의 울림을 경험했다. 이때, 중요한 지점은 ‘소리’가 새로운 ‘사운드적 시공간’을 형성하며 사회적 신체들을 감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광주의 ‘현장’에서는 ‘자연의 소리’, ‘사람의 소리’, ‘사람이 만드는 소리’, ‘기계 소리’, ‘음향 미디어의 소리’, 그리고 ‘기억과 이미지와 같은 소리’가 복합적으로 울렸다. 그 와중에 라디오·텔레비전과 국민의 상호 작용에서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는 상황을 ‘폭도’의 소행으로 왜곡했고, 방송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이를 (무)의식적으로 인지시켜야 했다.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과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를 나누는 상상의 경계선이 ‘음향장치’에 부여된 것이다. 이 경계선에서 음향장치는 일상 구석구석에 배치되어 정동을 대량 보급하며, 시민들의 신체에 다양한 영향을 끼쳤다. 물론 신군부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음향장치’는 투쟁의 선전·선동·확산 효과를 끌어올리는 기제로 활용됐다. 그들에게 ‘소리’는 소리 세계와 현실 세계의 지각적 얽힘을 거듭 갱신해나가는 ‘공동체의 장’이었다.

‘소리’ 환경에서 인간의 패턴을 연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풍경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가는 각 시대의 사진·도면·지도로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소음 레벨이나 소리가 무엇을 환기했는지를 알기란 매우 어렵다. ‘소리’가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외부의 새로운 세계를 도입될 수 있다는 가정, 그것이 사운드스케이프 연구의 시작점이다.

‘Sound(소리)’와 ‘Scape(풍경)’를 합친 조어 ‘Soundscape’가 규정된 것은 캐나다의 작곡가·환경운동가인 머레이 셰이퍼(R. Murray Schaffer)에 의해서였다. ‘Landscape(풍경)’에서 원용하여 만들어진 이 개념은 소리 환경을 작품으로 해석하기 위해 제시된 표현이었다. 그는 ‘소리의 환경. 전문적으로는 연구의 필드로서 보여진 소리 환경의 일부분. 현실의 환경이나 그것이 하나의 환경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음악작품이나 테이프 몽타주와 같은 추상적인 구축물을 가리키는 경우’라는 의미로 사용했다.⁶⁾ 단순히 음악적인 것만이 아닌 그림 속의 풍경처럼 구체적인 형상과 배치, 그 속에서의 진동과 울림, 빠름과 느림, 정동의 감도를 포함한 것이다. 즉, 그에게 사운드스케이프는 “보이는 대상(objects seen)”뿐만이 아닌 “들리는 사상(events heard)”이었다(셰이퍼 2008, 22). 셰이퍼의 논의는 심미적 청각 주체를 기획하고자 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음악을 선율, 멜로디, 박자 등의 음악 본유적 요소에서 벗어나 광범위하게 사운드 형성체로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의 지평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 글은 사운드

6) 머레이 셰이퍼는 1969년에 발표한 *The New soundscape*(Universal Edition, 1969)에서 ‘Sound-scape’의 개념을 규정했다. 그는 전원과 도시의 사운드스케이프를 분석하면서 고층실도와 저층실도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가 정의한 고층실도 시스템은 신호 대 잡음비가 높은 시스템을 뜻하는데, 환경소음레벨이 낮고, 개개의 소리를 명확히 들을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예컨대 전원은 도시보다 고층실도의 상태이며 밤은 낮보다, 고대는 현대보다 고층실도의 상태이다. 반면, 저층실도는 산업혁명으로 일어났으며 전기 혁명으로 확장되었음을 설명한다. 산업혁명은 많은 소리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많은 자연·인간의 음을 불명료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설명한다(Schaffer 1997(1994), 43, 71, 274).

스케이프에 주목한다. 이는 ‘소리’를 물리적인 존재가 아닌 하나의 ‘풍경’으로 다루고, ‘소리’의 성질에 근거해 광주 민중항쟁의 ‘현장’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사운드스케이프’는 일반화·사회화된 개념이 아니며 광주 민중항쟁을 ‘소리’에 적용해보는 일도 익숙한 사고가 아니다. 따라서 이 글은 ‘소리’에 대한 완전한 지각이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최근의 사운드스케이프에 대한 연구들과 그에 의해 촉발된 개념에 의지하여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⁷⁾

1)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

1980년 3월부터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준비하던 신군부는 정권찬탈의 음모를 숨기고 진압을 정당화하고자 보도 검열·기사 삭제·왜곡 보도 등의 방법으로 언론을 통제했다. 이는 광주 민중항쟁을 왜곡하고자 펼친 심리공작(Psychological Operations)이었다. 심리공작의 목적은 “주체자가 대상자의 어떤 반응을 목적으로 시행하였는가에 따라 수신자의 ‘인지적 변화’, ‘정서적 변화’, ‘행동적 변화’로 구분”된다(이윤규 2006, 194). 먼저 인지적 변화는 현상과 사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 즉 이해·신뢰(홍보·선전·비판·폭로) 등의 주제가 해당된다. 정서적 변화는 감정의 변화,

7) 사운드스케이프의 문화정치는 ‘미디어 이론과 역사’, ‘소리의 문화사’를 연구하는 임태훈이 고안한 개념이다. 이 글은 그의 박사논문 “박정희체제의 사운드스케이프와 문학의 대응”(임태훈 2014)에서 다룬 핵심 개념에 의지하여 전개한다.

즉 공포·중오·동정·향수·경멸의 감정(전의 상실·갈등 유도·사기 고취)을 말하며, 행동적 변화는 반체제·반독재 투쟁과 투항·전장 이탈(공포감 조성·투항 유도·작전 협조) 등을 의미한다. 이에 비추어, 당시의 심리공작은 시민을 동요하게 하여 전투 의지를 분쇄하고 전투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그들의 전술은 “폭력적이고, 추상적인 동시에 물리적인 다양한(생체 기계적·사회적·문화적·예술적·개념적) 음향장치”를 통한 ‘소리’ 공격이었다(Goodman 2009, 10). 음향장치는 단순히 소리를 내거나 증폭시키기만 하는 기계가 아니다. 볼륨을 조절하거나 소리를 변용·조작할 수 있는 기계이기도 하다. 물론 모든 소리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장치도 아니며, 통제력의 본질은 “소리 그 자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전기적인 조작에 근거”한다(임태훈 2011, 289).

신군부에게 미디어 환경의 주도권을 쥐는 것은 정권 유지를 위한 핵심 사안이었다. 그들의 출발점이었던 12·12 군사반란에서부터 5·17 쿠데타, 광주 민중항쟁까지의 시기는 군부 내 권력을 장악하고 정권을 찬탈·유지하기 위한 전투의 연속이었다. 1980년 초부터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정국 운영에 방해되는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 K공작을 실행했고, 4월 14일에는 중앙정보부장(서리)을 검직하여 대한민국 내의 정보기관을 장악했다. 그리고 5월 17일에는 비상계엄을 확대 조치하여 계엄포고령 10호(정치활동 금지, 언론·보도 검열 강화)를 선포했다. 이는 미디어가 국가의 통치 이데올로기에 따라 국민의 신체를 포섭하고, 행동능력을 제약하며 생활 방식을 훈육·통제하는 데 탁월한 매체였음을 드러낸다.

언론을 장악한 신군부는 광주에 군을 투입하여 시민들에게 ‘전파할

소리'와 '차단할 소리'를 선전과 검열로 구분하고 사운드스케이프를 산출했다. 라디오·텔레비전·탱크·헬기 스피커 등의 미디어를 통해 공간을 장악하고 선전·선동·선무 활동으로 시민들의 감각을 교란시킨 것이다. 그만큼 '소리'가 사람들의 정동(情動, affect)⁸⁾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히 위력적이었다. 소리의 진동은 단순히 음량의 증폭으로 전달되는 것을 넘어서 신체에 직접 진동을 가하며, 이 진동은 단순한 비트가 아니라 주기와 경련의 교차점을 이룬다. 그리고 “공간과의 상호작용의 중첩에 따라 추상적인 파동으로 전환”되어 청자의 청각을 현혹하며 가상의 대상물을 떠올리게 한다(홍철기 2010/06/25).

광주 민주항쟁의 시작을 알린 신군부의 명령은 차량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나온 소리였다. 5월 18일 오후 3시 40분경, 유동삼거리에서 세 겹의 횡렬을 지은 공수부대가 금남로를 향해 전진했다. 그리고 오후 4시에는 대열을 이끌던 1.5톤급 차량의 스피커에서 위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거리에 나와 있는 시민 여러분, 빨리 집으로 돌아가십시오(김영택 2010, 261).

시민들은 공수부대의 대열과 50여 미터 떨어진 도청 쪽에서 진을 친

8) 정동(情動, affect)은 자신에 의해 표현되고 타인에 의해 경험되는 감정경험을 뜻하며, 기쁨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신체'의 상태가 아니라 '존재' 능력의 연속적인 변이를 문제시하는 개념이다(들뢰즈 2005 참조).

경찰 사이의 인도에서 상황을 바라보거나 시위와는 무관하게 지나다녔다. 그런데 귀가 종용 방송이 나온 지 1분도 채 안 되어 도열한 군인들에게 체포명령이 떨어졌다.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 전원 체포하라(김영택 2010, 261).

단 한마디였다. 처음부터 공수부대원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시위 해산’이 아닌 ‘체포’였다. 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어떠한 행동지침도 없었다. 앞선 귀가 종용은 선무 방송을 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이다.⁹⁾ 명령이 떨어지자 금남로 한복판에 공수부대가 투입되어 시민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 ‘체포명령’은 현장에서 살상명령으로 둔갑하여 열흘 동안 국가폭력에 의해 전개된 ‘광주살육’으로 확대·재생산됐다. 이는 광주 민중항쟁의 신호탄이자 전두환 정권의 창출을 예고하는 선언에 다름없었다.

이날 오후 5시쯤에는 공수부대의 폭력을 피해 학생과 시민들이 흩어지고 거리는 텅 비어버렸다(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1997b, 442). 시위는 끝난 것만 같았다. 저녁 7시경에 계림동 광주고등학교 부근에서

9) 당시 지휘관이었던 7공수여단 33대대장은 권승만 중령은 “15분간의 선무방송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김영택은 “거리에 나와 있는 시민 여러분 빨리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빨리 돌아가십시오”라는 한 번의 방송 이외 어떠한 선무방송도 들은 바 없다고 증언했다(국회 1989, 6).

다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공수부대의 진압으로 곧 와해됐다. 밤 9시부터는 앞당겨진 통금으로 상가들도 일찍 문을 닫아 거리에는 군용차량만이 지나다니고, “이따금 호루라기 소리만 들릴 뿐, 시내는 고요”했다(김영택 2010, 279). 다시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가 위세를 드러내는 시간이었다. 공수부대를 피해 인근에 몸을 숨겼던 학생·시민들에게는 ‘통금위반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까지 더해진 것이다. 해방 직후부터 미군정이 야간 통행금지를 시작하면서 통금은 수십 년 동안 반복됐다. 이 반복은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를 박동하는 주요한 리듬으로 국민의 신체에 규율 권력을 기입했다. 통금을 정한 “통치권자의 힘 앞에서 사람들은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낭패감을 느끼고, 당황하는 정동의 지배”를 받아왔다(임태훈 2014a, 122). 그만큼 통금은 스피커에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를 전국에 현현할 수 있는 장치였다. 통금의 밤은 시위가 벌어지던 한낮의 ‘소음’에 비해 훨씬 조용했지만, 공수부대는 산수동·풍향동 일대 주택가를 수색하며 진압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더구나 공수부대가 ‘운동권 학생들의 학적부를 갖고 시내의 모든 주택가를 수색한다는 소문’이 떠돌면서 학생들의 공포는 더욱 가중됐다(최정운 2012, 161).

다음 날인 19일에도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가 지닌 위력은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라디오·텔레비전에서 광주의 상황이 일절 보도되지 않은 것이다. 사실 권력이나 특정 시스템에 의해 ‘사건’ 혹은 ‘타자’가 완벽하게 장악·통제될 수는 없다. 요컨대 소리는 고정될 수 없으며, 사운드스케이프는 본질적으로 소음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다. ‘소리’ 혹은 ‘듣기’

를 이루는 성분 가운데 이질적·반동적인 것이 섞여 있다고 판단하면, 그건 소리의 성질과는 무관한 이념적 판단이거나 청자들과의 관계 속성에 근거한 문제다(임태훈 2014a, 88). 따라서 또 다른 이념 속에서 ‘소리’는 소음이 될 수도, 소음이 아닌 게 될 수도 있다. 이미 많은 부상자·연행자가 발생하여 시민들은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가 “국민을 향해 쏟아내고 되먹임하는 과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진실을 외면하는 라디오·텔레비전의 소리는 ‘소음’으로 치부될 따름이었다(임태훈 2011, 303). 즉 미디어가 전한 ‘소리’와 ‘진실’의 침묵은 완전히 다른 사회적 배치 속에 놓여 있었다.

오전 9시가 지나가 금남로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전날의 충격과 분노를 삭일 수 없었던 시민들은 골목길을 통해 금남로 3가 가톨릭센터로 모여들었다. 10시경에는 3,000~4,000명이 무리를 이뤘다. 시위를 목적으로 모여든 군중이라기보다는 전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은 가족 걱정에서 뜬눈으로 밤을 새고 나와 가족의 소식을 알아내려는 사람들과 전날의 상황에 분노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김영택 1988, 40). 이들 중 누군가 ‘내 새끼 내놔라’, ‘공수부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자 시민들의 함성과 목소리는 점점 거세졌다. 그들 가슴에 내재하던 분노와 악이 폭발한 것이었다. 동요한 시민들의 행동이 격렬해지자 도청광장에 진을 치고 있던 군·경은 스피커를 통해 해산중용 방송을 시작했다.

시민과 학생들은 계속해서 금남로 가톨릭센터 앞에서 도청 광장 쪽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었다. 도청 광장에 진을 치고 있던 경찰 쪽에서는 스피커를

통해 해산을 종용하고 있었다. 공수부대원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지만 공중에서는 군 헬리콥터가 금남로에 모여든 시민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었다(김영택 2010, 286).

신군부는 ‘소리’와 ‘방송’이 지닌 힘을 활용했다. 그들은 대외적으로 광주에 상황을 알리는 보도를 차단·왜곡했고, 광주에서는 시위군중을 향해 수많은 ‘해산종용 방송’과 ‘선무 방송’을 쏟아 부었다. 이에 시민들이 불응하자 급기야는 각종 음향장치를 통해 항쟁을 ‘간첩’, ‘폭도’의 소행으로 지목하며 상황의 원인을 타자화해 나갔다. 예컨대 5월 21일, 이회성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담화문』의 내용은 군부의 귀가명령에 불응하고 거리에 남아있거나 무기를 소지한 시민을 ‘폭도’로 간주한다는 것이었다.

폭도들에 합류한 선량한 시민이나, 학생은 즉시 귀가 하십시오. 불법 무기를 소지한 자나 난동을 주동한 자를 눈여겨보았다가 사태가 정상화되면 군부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8시 이후 밤거리를 방황하는 자는 무조건 폭도로 간주하겠으니 밤에는 일체 외출을 하지 마십시오(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1997a, 102).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는 보안법·반공법이 매개변수로 밀착하면서 통치 권력을 증폭시켰다. 군부가 제시한 행동 범위에서 이탈하는 자는 ‘간첩’, ‘폭도’ 등으로 매도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다. 그런

데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는 선전·선동·선무 등의 목적뿐만 아니라 매우 군사화된 방식으로 사용됐다. 이는 미디어 환경 변화와 사운드스케이프의 변천사에 맞물린 문제다. 광주 민중항쟁에 앞서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가 군사화된 방식으로 사용된 시기는 한국전쟁(1950~1953년)으로 거슬러 오른다. 전선이 휴전선 부근에 고착되던 1951년 6월부터 전선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전단(빠라)이 살포됐고, 빠라 외에도 “라디오 방송, 확성기 방송, 그밖의 온갖 수단이 응용된 시청각 통합 심리전”이 벌어졌다(임태훈 2014a, 6). 이승만 정권은 3·15 부정선거를 앞두고 라디오와 램프, 스피커를 벽촌에 보내는 등 공철 시설 보급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그 이후 박정희 정권 역시 라디오가 국민 미디어로 등극해나가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며, 혁명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공보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국가권력의 인지정치에 반응하며 ‘국민 됨’을 수행하고(재)매개하는 신체들의 동적 연결망, 즉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는 정치적 변동이 있을 때마다 미디어의 환경 변화와 연동되어 진행됐다. 그리고 광주 민중항쟁에 이르러서는 ‘광주사태’를 ‘항쟁’의 국면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했다.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정각이었다. 도청 스피커를 통해 가사 없는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공수부대는 사전 경고하듯 공중을 향해 집단 발포했다. 그리고는 곧 정조준해서 시민들에게 사격을 가했다. 애국가가 ‘발포명령’을 알리는 신호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애국가가 흘러나옴과 동시에 총성이 울렸다.

1시 정각이었다. 도청 옥상에 네 방향으로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애국가

의 리듬이 장중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애국가에 때를 맞춘 듯 따따따, 따따따 요란한 총성이 일제히 터져 나왔다(김영택 1988, 103-104).

광주 민중항쟁에서의 집단 발포에 대해 사람들은 주로 애국가와 연관 지어 인지한다. 이는 미디어 환경과 연동·작동된 사운드스케이프가 시민들의 신체성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일상적인 소리를 듣는 신체는 라디오·스피커 방송의 전파와 내밀한 관계에 놓여있다. 요컨대 당시는 국기 게양·하강식마다 전국의 라디오·스피커에서 애국가가 울리면 누구든 행동을 멈추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이는 국가권력에 의해 조건반사적으로 신체에 강요된 조치였으며, 국가와 국민이 맺는 “힘의 관계를 비대칭적인 것으로 여기고 ‘들음’이 복종의 기계화”한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다(임태훈 2008c, 448). 물론 국가의 소리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며 ‘듣기’로 연결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는 무엇도 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는 소리의 신호를 조절하는 힘을 맹신하듯, 특정 범위의 정동을 반복했다. 이는 국가를 이루는 요소들이 국가에 의해 통제·변용될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할 때라야 가능한 행위였다.

2) 음향을 통한 시민공동체의 형성

항쟁 기간, 전국의 공식·비공식 언론은 왜곡된 소식만을 보도했다.

그리고 광주에 투입된 군은 온갖 음향장치를 응용한 심리전을 전개하며 시민들을 선동·회유하는 전략을 펼쳤다. 연일 상황을 외면·왜곡하는 라디오·텔레비전뿐만 아니라 헬기마저 방송을 위해 동원했고, 탱크와 장갑차에도 확성기를 장착했다. 광주 민중항쟁을 폭도의 소행으로 폄하하고 시민들의 투항을 유도하기 위한 심리전을 펼친 것이다.

학생·시민들은 각종 음향장치를 동원하여 방어·대응 방송을 하고 『투사회보』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자기 집단의 정체성”을 선전했다(천유철 2015, 493). 거리에는 익명의 언어와 기호들이 저항을 표현했고 더불어 “노래와 구호 같은 ‘가청적(可聽的)인’ 것들도 시각적인 것들을 확충”하는 도구로 기능하며 서로 부딪혔다(전정환 2009a, 64). 즉, 광주에서는 군부의 심리전에 대응한 방어전이 ‘언어·청각·시각’을 구분하지 않고 펼쳐졌다. 이때, 방어는 “자신의 심리 방어선을 확고히 해 소극적인 심리 현상을 예방·해소하며 승리의 신념을 굳혀 고양된 전투 사기를 유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노다 히로나리 2009, 53). 그들의 대대적인 방어전은 5월 20일에 전개된 ‘차량시위’로부터 시작됐다. 무등경기장에 집결했던 200여 대의 차량이 금남로를 메우자 시민들은 대형 스피커 구매를 위한 모금활동부터 벌였다.

서서히 전진하는 차량 틈바구니에서는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다. 타이탄 트럭에 스피커를 매달아 방송도 시작했다. 이 스피커는 즉석에서 40만 원을 모금하여 단 것이다(김영택 1988, 64).

수만의 인파 속에서 “음향장치는 투쟁의 선전·선동 효과를 위한 정동적 동원에 높은 효용가치”였다(친유철 2015, 494). ‘소리’를 통해 호소하면 다수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 서로의 의식을 공유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요컨대 수많은 차량 사이에서 등장한 전옥주¹⁰⁾의 가두방송이 강렬한 인상으로 남겨진 것도 그러한 맥락이었다.

계엄군 아저씨,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입니까? ... 시민 여러분, 모두 힘을 합칩시다. 끝까지 물러서지 말고 광주를 지킵시다(김영택 2010, 334).

군과 시민들이 대치한 공간에서 그녀의 음성이 울렸다. ‘소리’가 닿는 곳마다 함성이 쏟아졌고, 군중은 열광했다. 이는 신체가 그 자체로 재매개하는 미디어로서, “감성과 감수성이 사회적으로 공명을 일으키고 증폭되는 현상”이 인간 신체의 재매개 과정으로 강화됨을 드러낸다(임태훈 2014b, 26). 그녀의 ‘소리’가 조직적 체계가 미비했던 군중을 그러모을 수 있었던 것도 ‘민심의 진작’과 ‘정신적 결합’에 유용한 음향장치의 이점 덕분이었다(요시미 순야 2005, 352).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과 공수부대원의 회고는 이를 뒷받침한다.

10) 전옥주의 본명은 전춘심(당시 나이 32세)으로 전남 보성군 울어면 문양리 출신이다. 그녀가 가명을 쓴 것은 항쟁 기간, 도지사와의 면담에서 이름을 질문받자 갑자기 떠오른 ‘옥주’라는 이름을 낸 것이 계기였다(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2012, 147).

공용터미널 바로 위편의 구역 사거리에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아주머니(전옥주, 32세)가 휴대용 확성기를 붙들고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가두방송을 하고 있었다. 가두방송을 접한 시민들은 눈시울을 적시면서 이내 수천명의 시위대열을 형성, 시내로 진출을 시도했다(윤재걸 증언).¹¹⁾

여자의 음성은 시민들에게는 슬픔과 울분, 분노 등을 온몸으로 느끼게 할 만큼 전율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목소리 또한 어찌나 고운지 저는 처음에는 불에 탄 문화방송의 여자 아나운서가 화가 나서 선무방송을 하나 하고 생각했고, 여러 동료들도 저와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심금을 울리는 선무방송이었습니다(김희경 증언).

‘소리’는 그 자체로 울려 퍼지지만 하지 않았다. 소리가 울리는 동안, 청중은 ‘소리’를 통해 각자가 처한 상황과 공동체의 삶을 떠올렸다. 즉 소리가 놓인 지평을 표현함으로써 청자는 소리에 대한 지각을 환기했다. 이는 소리를 둘러싼 관계의 성질로부터 비롯된다. 소리는 ‘개인의 것이기만 한 것도 아니고 현전(現前)하기만 한 것도 아니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현전하고 그 속에서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는 다른 행동에 현존(現存)한다(임태훈 2008b, 101). 즉 전옥주의 방송은 소리의 세계에서 시민들에게 서로가 함께하는 공존재임을 깨닫게 했다. 이는 음향의 테크

11) 이하 증언은 모두 전남대 518연구소, 학술DB(myweb.jnu.ac.kr/~cnu518)에 실린 것이다.

닉(technic)만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사운즈스케이프'이다.

밤 9시 50분쯤에는 광주문화방송국에서 불길의 치솟아 올랐다. 이날 저녁 7시 MBC뉴스에 계엄당국이 발표한 『담화문』을 듣고 분노한 시위 군중이 불을 지른 것이다.¹²⁾ 모든 언론이 상황을 외면·왜곡하자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때부터 광주에서는 연일 투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쏟아졌다. 즉 그들 스스로 살인적 폭압에 살아남기 위한 '진실한 소리'를 울리기 시작했다.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싸우면서 질렸던 비명의 '소리'마저 선전의 무기가 됐고, 여기에 각종 '구호'와 '노래' 소리가 더해져 시민들의 투쟁 열기를 고조시켰다. 그리고 공수부대가 시 외곽으로 철수하고 펼쳐진 '해방광주'에서도 음향장치는 거미줄처럼 광주 곳곳에 포진된 민간 선전망으로 기능했다.

22일 아침, 선무 방송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갔다. 산수동 오거리에 이르니 시위 진압용 가스차에 탄 시민들이 '광주시민들의 단결된 힘에 의해 계엄군들이 광주에서 완전히 물러갔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고 있었다. 또한 방송 내용에는 '계엄군은 완전히 물러갔지만 광주가 지금은 어수선한 상태이니까

12) 『담화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의 소요 진압 과정에서 연행된 학생과 일반인은 군에서 잘 보호하고 있으며, 그중 가벼운 범법자와 잘못을 반성하는 일부 학생을 석방조치했으며,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선별하여 추가 석방할 것이며, 소요 주도자나 범법행위가 지나친 학생은 엄히 처리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힘을 합해 빨리 질서를 회복하자'는 내용도 있었다(손중대 증언).

4일 동안 계엄군에 의해 외부지역과 소통이 철저하게 차단되어 쌀과 생활 필수품의 부족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생활의 어려움을 심하게 느끼면서 더욱 그러했다. ... 시민수습위원회는 도청 스피커를 통해 이 같은 생활실태를 보고한 다음 시민들에게 생활복귀를 호소했다(김영택 2010, 498-499).

그날그날 실태를 보고하거나 시민들의 생활 복귀를 호소할 적에도 도청 스피커의 네트워크가 활용됐다. 이는 시민수습대책위원회(이하 수습위)의 아이디어였다. 고립된 광주에서 각종 정보와 항쟁의 확산을 위해서는 '전파'의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따라 수습위는 인적 네트워크를 옮겨 다니며 메시지를 전달하고, 방송을 청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방송 내용을 재매개해 파급력을 증폭시킬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음향장치가 일방적으로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를 증식시키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선전 양식으로 전이되었음을 보여준다.

18~20일까지 광주 시내의 각 병원은 부상자로 북적였다. 본격적인 발포가 있기 전이라 총상 환자보다는 구타를 당한 사람·군홧발로 차인 사람·개머리판으로 머리가 짓이겨진 사람·대검에 찢린 사람 등의 자상 환자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집단 발포가 자행된 21일 이후부터는 총상 환자로 가득 찼다. 광주시내 병원 시설로는 인원수용조차 벅찼고, '수술용 혈액마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음향장치를 동원하여 헌혈 모집 방송을 시작했다. 음향장치가 시민들을

있는 매개이자 메신저 역할로 생활화된 것이다.

나는 메가폰을 들고 “광주시민 여러분, 피가 부족합니다. 헌혈을 좀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방송을 하면서 서석교를 거쳐 월산동 지역을 돌아 양림동오거리에 있는 은혜약국 앞에서 헌혈을 했다. 사람들이 줄지어 나왔다. 너도나도 나서서 헌혈을 하겠다고 난리였다(김준봉 증언).

음향장치는 소식 전파, 항쟁 선전, 투쟁 호소, 질서 유지를 넘어 결사항전에 나설 ‘전사’를 모집하는 데도 실효성을 발휘했다. 5월 26일에는 신군부로부터 최후통첩을 받은 항쟁지도부가 도청 스피커와 차량 스피커, 메가폰을 통해 계엄군에 맞설 ‘기동타격대’를 모집했다. 현실적인 전투력의 차이를 살필 때, 기동타격대에 지원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모집 방송을 들은 수많은 시민이 결사항전에 나서기 위해 도청으로 몰려들었다.

1980년 5월 26일 오후 1시, 광주 전남도청의 스피커가 울렸다. 계엄군의 도청 무력 진압이 기정사실화된 직후였다. “끝까지 도청을 지킬 결의가 되신 분들로 기동타격대를 모집합니다. 뜻있는 동지들은 1층 회의실로 모여주십시오.” 회의실에 모인 60여 명에게는 전투경찰복과 방석모가 지급됐다(하어영 2010/05/24).

5월 26일 도청에서 기동타격대를 모집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러한 말은

사람의 입을 통해 순식간에 도청 안에 나들었고, 누군가 메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나는 기동순찰대는 빠져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하고 기동타격대를 모집한다는 장소에 가보았다(천순남 증언).

광주 민중항쟁이 종결로 치닫는 순간까지 ‘소리’는 생활 속에서 시민들을 동원하는 기제였다. 이는 사운드 시공간의 형성과 그에 따른 감각적 전이 과정을 보여준다. ‘소리’를 통한 ‘정치’ 행위는 청취자에게 특정한 상을 연상시키고 그 내용에 동화시키는 데 일조한다. 하나의 자극이 다른 감각을 동시에 활성화하며 공감각을 불러일으키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시민들은 ‘소리’를 통해 죽음을 무릅쓰고 기동타격대에 지원했던 것이다.

3. 사운드적 시공간의 형성: 음향전

군과 시민들은 다수의 사람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선전할 전략으로 음향장치를 선택했다. 물론 시민들은 음향장치 외에도 시·노래(노가바)·유인물·그래피티·벽보·구호·표어·가두방송·집회 등의 다양한 수단을 투쟁에 활용했다. 즉 “말로 된 수단과 그렇지 않은 수단에 의한 봉기의 확산”을 이루었다(구하 2008, 273). 그것은 도식적이며 실제로 분리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광주 민중항쟁에서 군은 시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생각·행동을 선동

할 기제로 ‘소리’를 사용했다(최수환 2010/10/12). 이때 ‘소리’는 ‘음’(音)을 매개로 ‘신체’에 침투하는 전략으로, 국가와 국민 혹은 권력과 저항하는 신체 사이를 길항하며 ‘음향전’(音響戰, Sonic warfare)의 양상을 드러냈다. 음향전은 소리라는 힘을 써서 싸운다는 뜻으로, 그 힘은 유혹적인 동시에 폭력적이고, 추상적인 동시에 물리적이며, 다양한 음향 기계를 통해 인구, 신체, 군중의 물리적, 정동적, 리비도적 역학을 조정한다. 따라서 인과적, 의미론적, 소위 인지적 청취 이전에 음향적인 것은 일련의 ‘자동적 반응을 통한 접촉’과 ‘전시의 현상’이자 ‘전동적 권능’의 전체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굿맨 2010). 음향전의 차원은 오래전부터 전투 일부를 구성하며 우리 생활 곳곳에 침투해왔다. 또 광주 민중항쟁에서 군과 시민이 한 공간에서 펼친 음향전은 항쟁 전 기간에 걸쳐 포착됐다.

장형태 지사는 경찰 헬기를 타고 “여러분의 요구는 모두 관찰시키겠습니다. 모수 해산하여 주십시오. 저는 도지사입니다.”라는 방송을 하면서 시위 군중 위를 맴돌고 있었다. … 시내는 운동 헬기에서 나오는 이 스피커 소리에 덮여 있었다. 그러자 전남대 학생들은 금남로 4가 중앙교회에 설치된 마이크를 통해 “어떠한 폭력과 방화도 막아야 되겠습니다. 광주시민의 긍지를 살립시다”며 군중들에게 질서확립과 재산피해를 막는 데 앞장서 줄 것을 호소하고 있었다(김영택 1988, 94-99).”

하늘과 지상에서 스피커와 스피커의 대결이 펼쳐졌다. 음향장치는 단순히 소리를 증폭시키는 기능만 지니지 않았다. ‘현장’에서 군은 “가장

크게 광대역의 ‘음(音)을 동원할 수 있는 주체로 군림’하기 위해 볼륨(volume)을 높이며 ‘소리’로 공간을 점령하려 했다(임태훈 2008a, 27). 하늘로 확장된 전장은 ‘새로운 음 환경’과 ‘인지 생산의 장’이었다(임태훈 2014a, 28). 영공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의 거점이었고, 폭격의 차원을 넘어 라디오 통신 기술 등의 새로운 전술이 적용되는 군사 환경이었다. 광주 상공에서 쏟아내던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는 청각의 심리전을 펼치는 무기였으며, 시민들에게도 ‘소리’를 활용한 심리전은 전과성에서 유인물과 같은 활자 매체보다 강력한 호소력을 지닌 도구였다. 한국어 자체가 문어보다는 구어에 더 어울린다는 특성과 소리를 듣는 데 인간의 귀 말고는 어떤 장비도 필요치 않다는 효율성도 한몫했다.

학생 팀은 전남대 스킨버스로 가두방송을 하고 다녔다. … 스피커 장치는 상태가 좋지 못하여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바른 홍보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전남대로 들어갔다. 학생회 지하실로 가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영선기를 빼내어 왔다. 영선기에 스피커를 작동시키니 훨씬 성능이 좋았다. 가두방송을 할 때는 주로 전두환이 항복할 때까지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싸우자는 내용을 주로 했다(박정열 증언).

학생·시민들은 음향장치를 확보하여 다양한 측면으로 활용했다. 가두방송을 통한 선전·선동뿐만 아니라 스피커를 장착한 차량을 이용해 타 지역에서 광주의 상황을 전파하기도 했다. 항쟁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음향장치의 기능에 차량의 기동성이 더해진 것이다. 지상에서는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이 시내·외를 돌며 가두방송을 쏟아 부었고, 군은 공중에서 헬기 방송으로 대응했다.

양측의 ‘소리’는 각각 다른 ‘청각사회적 방사(audiosocial radiation)’를 일으켰다. 이는 음향전의 상반된 두 개의 축, 또는 두 개의 전술적 경향을 드러낸다. ‘군’의 방사는 군중을 분산시키거나 집단적 에너지를 흩뜨리는 것으로, ‘시민’은 집단적 감각을 고양하는 측면으로 방사됐다(굿맨 2010). 시민을 ‘폭도’로 매도한 군의 방송과 이에 맞서 투쟁할 것을 호소한 시민의 방송이 그랬다. 예컨대, 항쟁이 종결로 치닫던 5월 27일 새벽 2시 30분, 군의 도청 진압작전 직전에 도청 내 방송요원이었던 박영순(송원전문대)과 이경희(목포전문대)는 군의 재진입을 알리는 방송을 했다.

광주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 우리는 광주를 시수할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강현석 증언).

그녀들의 애절한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시내에 울려 퍼졌다. 당시 방송을 들은 시민들의 증언은 ‘소리’가 사람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준다.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총소리는 들려오고 어디선가 ‘계엄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하는 여인의 스피커 음성은 나를 더욱 두려움의 극지로 몰고 갔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그 어떤 논리나 체계화된 생각들보다는

먼저 집과 가족들의 얼굴이 차례로 떠오르고, 내가 살아왔던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천영진 증언).

그때까지도 도청에서는 교전하는 총소리가 들려왔다. ... 집에 들어간 나는 3일 동안 꼼짝 않고 집에 있었다. 문소리나 어떤 조그마한 소리조차도 총소리로 들려오는 등 공포에 싸여서 지내야 했다.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었다(손남승 증언).

‘소리’만으로도 시민들은 강박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을 느꼈다. 여타의 사회운동과 달리 폭압적 권력에 의해 고립된 공간과 죽음의 공포가 상존하는, 즉 준전시와 같은 상황에서 듣는 ‘소리’는 청각을 비롯한 시각, 피부로 전해지는 촉각의 대응이자 모든 감각과 상호 반응하는 공감각적 변이, 그리고 시대 인식의 총체와 밀접하게 연관된 인지적 업힘의 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체험의 울림으로, 그것은 어떠한 논리나 체계화된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적 차원의 문제였다(임태훈 2014b, 17). 이렇듯 광주 민중항쟁에서 ‘소리’는 그 내용의 사실(혹은 유용성)과 상관없이 유형의 현실에서 무형의 변동을 촉발했다. 물론 ‘음향전’의 테크닉은 실체가 없다는 특성으로 그 의미를 거론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소리가 지닌 효력과 잠재성일 것이다. 그날의 ‘소리’는 지금도 ‘이명’으로 울리며 기억을 작동시키고 있다.

4. 나가며

이 글에서는 항쟁 기간, 시민들이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의 위력에 저항하기 위해 스피커를 통한 방어전을 펼치고, 언론이 정지된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활용한 사실을 주목했다. 공권력이 사라지고 언론이 무기력화된 상황에서 음향장치가 투쟁을 고취하기 위한 용도이자 공론형성을 위한 매개체로 사용되었음을 밝힌 것이었다. 이는 심리전을 촉발시키는 시각적 매체(선전물, 유인물, 지하신문)에 주목한 선행 연구의 관점에서 벗어나 ‘사운드스케이프’라는 관점으로 항쟁을 조망한 것이다. 예컨대 항쟁의 ‘현장’에서 시각적 매체를 통한 선전·선동 활동은 항쟁의 성격을 특정한 ‘이미지’로 표(재)현해 내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였다. 그리고 여기에 청각적 매체가 더해져 상황의 “단순한 시각을 넘어서는 해석을 시도하도록 자극”하는 효과를 발휘했다(테리다 2004, 106). 즉 항쟁 기간 전개된 문화적 실천은 다양한 감각의 측면에서 발현되어, 시민 내부에 함축된 감정과 이념을 두드러지게 만들었다. 물론 시각(이미지)과 음향(청각)은 전혀 다른 시스템을 통해 인식되지만, 그 의미를 해석할 때 서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소리’를 들을 때 시각적 상상을 통해 음악적 의미를 파악하거나 시선의 경계를 벗어난 공간의 소리를 통해 시각적 이미지를 구성하기도 한다. 이렇게 상호 간섭 조응하는 것은 시각을 처리하는 뇌의 부분과 청각을 처리하는 부분이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1980년 5월, 소리에 둘러싸인 ‘광주’는 심리전의 전술 범위이자 미디

어 체험의 장이었다. 음향장치를 통해 울려 퍼지는 각종 방송은 광주 곳곳에 걸쳐 자연의 소리와 뒤섞였고, “인공과 자연, 기계와 생명이 뒤섞인 환경에서 미디어 체험은 생존 기술과 직결”됐다(임태훈 2014a, 7). ‘소리’는 그 특성상 시각적 매체보다 짧은 시간에 장소를 불문하고 광범위한 지역의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국가폭력에 대한 투쟁뿐만 아니라 차량에 스피커를 장착하여 생활과 관련된 안내방송을 했고, 도청 앞 분수대의 스피커는 항쟁에 대한 시민적 의사를 수렴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광주 민중항쟁 ‘현장’에서 ‘소리’는 현실의 감각을 가로질러 각 주체의 질서를 확립하고 상대방을 회유시키며 문화적 긴장을 증폭하는 ‘소리로 풍경화’된 최적의 언어였다. ~~소리~~

참고문헌

-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1997a. 『5·18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2권』.
 _____. 1997b. 『5·18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4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2012. 『광주, 여성』. 후마니타스.
 구하, 라나지트(Ranjit Guha). 2008. 『서발턴과 봉기』. 김택현 역. 박종철출판사.
 굿맨, 스티브(Steve Goodman). “음향전이란 무엇인가.” 윤원화 역(<http://som.saii.or.kr/archives/feature/sound-politics/974>).
 국회. 1989. 『5·18청문회 회의록』. 제25호.

- 김영택. 2010. 『5월 18일, 광주』. 역사공간.
- _____. 1988. 『10일 간의 취재수첩』. 사계절.
- 김정환. 2013. 『1980 대중 봉기의 민주주의』. 소명출판.
- 노다 히로나리. 2009. 『한반도 주변 심리 첩보전』. 흥영의 역. 행복포럼.
- 데리다, 자크(Jacques Derrida). 2004. 『시선의 권리』. 신방훈 역. 아트북스. 106.
- 들뢰즈, 질·안토니오 네그리·빠올로 비르노·마우리쨌오 랏짜라또·마이클 하트 (Gilles Deleuze, Antonio Negri, Paolo Virno, Maurizio Lazzarato, and Michael Hardt). 2005. 『비물질노동과 다중』. 서창현·김상운·자울평
론번역모임 역. 갈무리.
- 샤브쉬나, 파샤. 1996. 『1945년 남한에서: 어느 러시아 지성이 쓴 역사 현장기록』.
김명호 역. 한울.
- 쉐이퍼, 머레이(Murray R. Schaffer). 2008. 『사운드스케이프: 세계의 조음』. 한명
호·오양기 역. 그물코.
- 요시미 순야. 2005. 『소리의 자본주의』. 송태욱 역. 이매진.
- 이윤규. 2006. 『들리지 않던 총성 종이폭탄!』. 지식더미.
- 임태훈. 2014a. “박정희체제의 사운드스케이프와 문학의 대응.” 성균관대 박사논문.
- _____. 2014b. “사운드스케이프 문화론에 대한 시고.” 『반교어문연구』. 제38권.
반교어문학회. 15-40.
- _____. 2011.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와 붉은 소음의 상상력.” 『대중서사연구』 제
17권 제1호. 283-311.
- _____. 2008a. “‘음경’의 발견과 소설적 대응: 이효석과 박태원을 중심으로.” 성균
관대 석사논문.
- _____. 2008b. “소음화 지향과 ‘목소리’의 고현학.” 『구보학보』 3집. 85-116.
- _____. 2008c. “소리의 모더니티와 ‘음경’의 발견.” 『민족문학사연구』 제38권.
432-462.

- 천유철. 2015. "5·18광주민중항쟁 '현장'의 문화적 실천 상상." 『민족문화사연구』 제55권. 463-503.
- _____. 2014. "5·18 광주민중항쟁 '현장'의 문화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 천정환. 2014. "1980년대 문학·문화사 연구를 위한 시론(1)." 『민족문화사연구』 제56권. 389-416.
- _____. 2009a. "해방기 거리의 정치와 표상의 생산." 『상허학보』 제26집. 55-101.
- _____. 2009b. "소문(所聞)·방문(訪問)·신문(新聞)·격문(檄文): 3·1운동 시기의 미디어와 주체성." 『한국문학연구』 제36집. 109-154 .
- 최수환. 2010. 10. 12. "그래픽 악보: 사운드와 이미지의 언어."(<http://som.saii.or.kr/archives/feature/sound-contemporary-art/2812>).
- 최정운. 2012. 『오월의 사회과학: 사회과학자의 시선으로 새롭게 재구성한 5월 광주의 삶과 진실』. 오월의봄.
- 홍철기. 2010.6.25. "노이즈/즉흥, 혹은 정치적 예술로서의 음향."(<http://som.saii.or.kr/archives/feature/sound-politics/377>).

Goodman, Steve(a.k.a Kode9). 2009. *Sonic Warfare: sound, affect & the ecology of fear*. MIT Press.

Schaffer, R. Murray. 1997[1994]. *The soundscape: The Tuning of the world*. Destiny books.

언론기사

- 강현석. 2014/12/03. ""우리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5월 광주, 27일 새벽 '마지막 방송' 도청서 했다." 『경향신문』.
- 천정환. 2013/08/09. "일베와 종편의 '쓰레기장'에서 '광주'를 구하는 법!" 『프레시안』.

하어영. 2010/05/24. “잊혀진 시민군, 도청 기동타격대.” 『한겨레21』.

증언자료

전남대 518연구소. 학술DB(myweb.jnu.ac.kr/~cnu518).

Soundscape of The May 18 Gwangju Democratic Uprising 'Site'

Cheon, Yu Cheol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article attempts to approach and analyze the 'Scene' of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through the perspective, 'soundscape'. It looks into, first of all, the soundscape of the state that added government power to geopolitical sound, the 'acoustic community' formed through sound devices by the citizens who set out to proceed with the movement and lastly, the sonic warfare of those who resisted the state's soundscape.

In May 1980, surrounded by the sound, 'Gwangju' was a tactical scope of psychological warfare and a place for media experiences. New Army Group that deployed the forces in Gwangju carried out a strategy of instigating and appeasing citizens, developing a psychological warfare applying several acoustic systems. It mobilized helicopters as well as radio and television for broadcasting and equipped tanks and armored vehicles with loudspeakers. Accordingly, students and citizens defended against and responded to the forces' strategy through various acoustic systems, while they propagated their own collective self-identity. In sum, a place that covered all capabilities of psychological warfare unfolded in 'Gwangju'.

This paper was written in order to restore and reconstitute the cultural

and political strategies on the dimension of sound developed in the ‘scene’ of the movement, unlike studies of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approached by focusing on the excavation of the existing facts, the investigation and revelation of the truth and discourse analysis. This is an attempt to expand the methods and spheres of studies of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 **Keyword:** Gwangju Democratic Uprising, Sound-scape, Cultural Politics of Sound, Acoustic Community, Acoustic Warfare

투고 : 2016/3/18 심사 : 2016/4/21 확정 : 2016/5/18